벼랑 끝 제주, 경남과 꼴찌 탈출 '맞대결'

이번 주말 치러지는 프로축구 K리그1 미리보기
울산·전북 '현대家 우승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
서울·대구·강원의 전력투구 3위 싸움도 볼거리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최하위인 제주 유나이티드가 주말 열리는 경남 FC와 '승점 6 맞대결'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제주는 27일 오후 3시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과 하나원큐 K리그1 2019 파이널B 3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달 21일 성남FC전 이후 4경기 무승(1무 3패)으로 부진한 제주는 리그 12개 팀 가운데 최하위(승점 23)에 처져 있다.

K리그1 12위는 승강 플레이오프 없이 바로 K리그2(2부리그)로 강등된다. 이번 시즌 남은 경기는 4경기뿐. 제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전히 희망은 있다. 27일 만나는 경남이 제주의 바로 위인 11위(승점 28)에 자리한 팀이기 때문이다.

이 맞대결에서 승리하면 경남을 묶어두면서 단숨에 격차를 좁힐 수 있다. 제주로서는 '승점 6'의 가치를 가진 경기인 셈이다.

반대로 경남은 제주전 승리를 따내면 꼴찌로 떨어질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다.

6일 펼쳐진 맞대결에서도 경남은 조재철과 우주성의 골을 앞세워 남준재가 한 골을 만회한 제주를 2-1로 꺾었다.

시즌 막판 '생존왕' 본능을 발휘하며 반등에 성공한 인천 유나이티드는 수원 삼성과 홈 맞대결을 벌인다.

개막 후 오랫동안 최하위를 전전하던 인천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를 쌓아 10위(승점 29)로 올라왔다.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였던 19일 성남전에서도 인천은 경기 내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도 투혼을 발휘해 1-0 승리를 거뒀다.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현대가(家) 우승 경쟁' 역시 치열하다.

울산은 강원 FC, 전북은 FC서울을 각각 홈으로 불러 26일 경기를 치른다.

지난 라운드에서 울산은 대구FC, 전북은 포항 스틸러스를 꺾고 나란히 승점 3을수확했다.

'NEVER GIVE UP 제주 끝까지 함께 해!'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는 27일 경남전 원정 응원단을 모집하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사진=제주 유나이티드 제공

선두는 울산(승점 72)이지만, 2위 전북(승점 71)과 격차는 승점 1뿐이다. 다득점에서도 두 팀은 66골(울산)-67골(전북)로 팽팽하다.

다음 달 23일 펼쳐지는 37라운드 맞대결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승점과 골을 쌓아 두는 것이 두 팀의 숙제다.

9월 14일 상주 상무전 이후 골과 어시스트가 멈춘 전북의 이동국은 서울전에서 K리그 역대 최초 300 공격포인트에 다시 도전한다.

서울 역시 전북전 승리가 간절하다. 시즌 중반까지 울산·전북과 '3강'을 형성하던 서울은 후반 들어 부진하며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3위(승점 54) 자리는 지키고 있으나 4위 대구(승점 50), 5위 강원(승점 49)의 추격이 매섭다.

대한축구협회(FA)컵 변수를 제외하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3위까지 주어지는 만큼 서울은 '수성', 대구와 강원은 '탈환'을 위해 막판까지 전력투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벤투호, 내달 브라질과 A매치 6년 만에 만나는 '삼바 축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다음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삼바 축구' 브라질과 맞붙는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이 11월 14일 레바논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원정 경기 이후 UAE로 이동해 19일 오후 10시 30분(한국시간) 아부다비의 모하메드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브라질과 친선 경기를 치른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경기는 중립 지역에서 열리지만, 최초로 브라질축구협회의 초청을 받아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FIFA 랭킹 3위인 브라질은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 호베르투 피르미누(리버풀) 등 세계적 스타들이 즐비한 팀이다. 브라질은 글로벌 투어의 일환으로 11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아르헨티나와 대결한 뒤 한국을 만난다. 연합뉴스

티샷 날리는 고진영 24일 오전 부산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열린 LPGA BMW 챔피언십 대회 1라운드에서 고진영이 1번홀 티샷을 날리고 있다. 이날 고진영은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6언더파 66타를 쳐 선두에 나선 호주 교포 이민지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 오른 고진영은 시즌 5번째 우승의 디딤돌을 마련했다. 고진영은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 1위를 확정한다. 상금왕도 사실상 굳힐 수 있고, 평균 타수 1위 경쟁에서도 절대 우위에 오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제주도체육회장 선거 내년 1월 15일 실시

내달 21일까지 선관위 구성

내년 1월 15일 제주도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다음달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24일 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2019년도 임시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선거 전 55일(11월 21일)까지 구성돼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됐다.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오는 11월 16일까지 제주도체육회 등 각 단체별 대의원이면 회장 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대의원이 시도체육회 임원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선거 35일전까지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수가 통보될 예정이다.

제주도체육회는 이날 총회에서 김병수 현 제주도검도회장을 신임 감사로 선출(보선)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 김병수 제주도체육회 신임 감사는 "도민의 눈으로 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도체육회 '청소년 스포츠한마당' 개최

26~27일 초·중·고 1062명 참가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스포츠로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26~27일 남녕고등학교 등에서 '2019 청소년 스포츠한마당 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정후원 사업으로 마련된 대회에는 검도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등 5개 종목에서 열띤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도내 초·중·고등학생 1062명, 213개 팀이 참가한다.

종목별 대회 일정을 보면 볼링은 26일 제주 탑 볼링장, 검도는 27일 남녕고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농구와 배구는 26~27일 이틀간 각각 제주제일중학교와 한라중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진다. 배드민턴은 오는 11월10일 제주복합체육관에서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평국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앞으로도 도내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반영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워싱턴, 벌랜더마저 무너뜨리며 WS 2연승

美 프로야구 월드시리즈 2차전 홈런 3 포함 14안타 12-3 대승

2019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최강을 가리는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가 언더독(약팀)의 역대급 대반란으로 진행 중이다.

워싱턴 내셔널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자랑하는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을 다투는 '다이내믹 듀오' 게릿 콜과 저스틴 벌랜더를 연거푸 무너뜨리며 월드시리즈(WS) 1, 2차전을 쓸어 담았다.

워싱턴은 2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드파크에서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WS 2차전에서 12-3으로 승리했다.

전날 1차전에서 5-4로 이긴 워싱턴은 2차전에서도 상대를 제압했다.

1969년 몬트리올 엑스포스라는 이름으로 창단해 2005년 연고지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미국 워싱턴 D.C.로 이전한 워싱턴은 창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WS에 올라, 첫 우승을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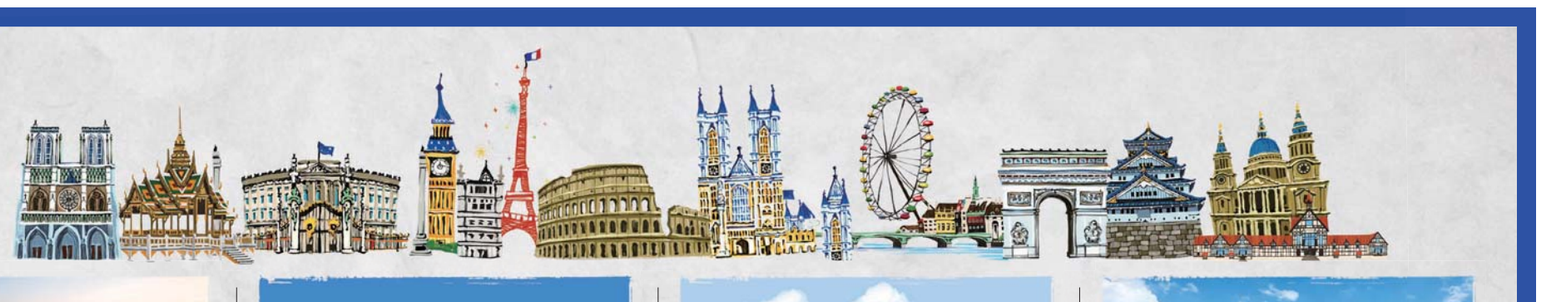
7전 4승제 WS에서 상대가 원투펀치를 내세운 1, 2차전을 모두 승리해 워싱턴의 기쁨은 더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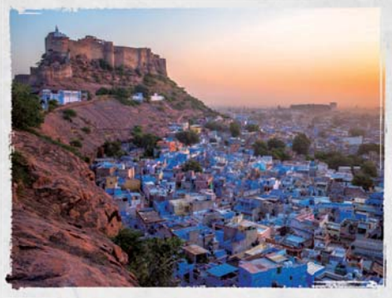
워싱턴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4차전부터 이날까지 8연승 행진을 벌이며 단일 포스트시즌 최다 연승 타이기록을 이뤘다.

휴스턴 원정에서 WS 1~2차전을 모두 잡은 워싱턴은 안방인 워싱턴 D.C. 내셔널스파크로 향한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월드시리즈가 열리는 건 1933년 이래 86년 만이다. 연합뉴스

마음이기억하는여행
한진관광
KAL 투어 KALPAK
예약문의 : 제주지점
742-7217
www.KALTOUR.com
제주시청점(이색투어) 758-2000
한진관광 멤버십!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세요~!
협찬 KOREAN AIR 50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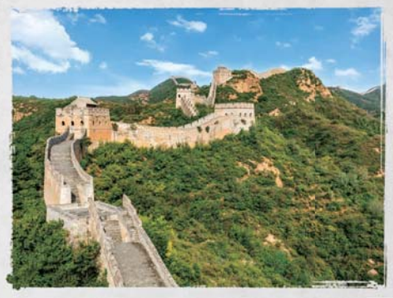




[품격] 대한항공BEST
인도 골든트라이앵글+ 라자스탄 일주[국내선 1회] 9일
₩ 2,990,000
출발일 : 11/14
최소출발인원 : 8명
일정 : 제주-김포-인천-델리(1)-아그라(1)-아바네리-자이푸르(1)-푸쉬카르(1)-조드푸르(1)-우다이푸르(1)-델리(1)-인천-김포-제주
선택관광 : 있음 ①,②

초특급 호텔 이용
인도 골든트라이앵글 [자이푸르 연박] 6일
₩1,670,000+90달러
출발일 : 11/8, 22
최소출발인원 : 8명
일정 : 제주-김포-인천-델리(1)-아그라(1)-파테푸르시크리-자이푸르(2)-델리-인천-김포-제주
선택관광 : 있음 ①,②

대한항공
중국 10대 명산 북경/백석산 4일
₩731,600~
출발일 : 11/13, 11/27
최소출발인원 : 10명
일정 : 제주-북경-래원(1)-백석산-북경(1)-북경(1)-제주(1)
선택관광 : 있음



대한항공
북경/만리장성 [랑팡 쉐라톤] 4일
₩581,600~
출발일 : 11/13, 11/27
최소출발인원 : 10명
일정 : 제주-북경(3)-제주
선택관광 : 있음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일반여행업 등록 제8호(서울시 중구청 등록) (주)한진관광 서울시 중구 소공로 88(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2층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기획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공통사항 : 상품가격 옆에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입니다. ■호텔 : 1급호텔이상(2인1실기준) ■식사 : 전일정 식사제공(단, 일부상품의 자유시간중 중/석식 제외) ■최소출발인원 : 10명이상(일부상품 제외) ■교통편 : 항공/버스/페리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음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에 의해 변동 가능 ■여행불편 처리센터 : 02)726-5672~73 ■안전경보단계 : ❶여행유의 ❷여행자제 ❸철수권고 ❹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2019.8.6 업데이트 기준) ■여행상품 가격 포함내역 :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항공택스,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박/일정상의 식사요금, 기사&가이드 경비(현지 지불), 여행자보험 1억원, 현지관광입장료 등, 일정표상의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경비 포함(단 자유여행 상품은 미적용) ■각국 비자비용 상품가격 외 별도지불 ■선택경비 : 선택관광(경비 별도)의 유무는 상품의 일정 옆에 표기하였으며,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으며 이에 따른 대체 일정이 제공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